

## 네거리의 순이

네가 지금 간다면, 어디를 간단 말이나?  
그러면, 내 사랑하는 젊은 동무,  
너, 내 사랑하는 오직 하나뿐인 누이동생 순이,  
너의 사랑하는 그 귀중한 사내,  
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……  
그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어디서 온단 말이나?

눈바람 찬 불쌍한 도시 종로 북판에 순이야!  
너와 나는 지나간 꽃 피는 봄에 사랑하는 한 어머니를  
눈물나는 가난 속에서 여의었지!  
그리하여 너는 이 믿지 못할 얼굴 하얀 오빠를 염려하고,  
오빠는 가냘픈 너를 근심하는,  
서글프고 가난한 그날 속에서도,  
순이야, 너는 마음을 맡길 믿음성 있는 이곳 청년을 가졌었고,  
내 사랑하는 동무는……  
청년의 연인 근로하는 여자 너를 가졌었다.

겨울날 찬 눈보라가 유리창에 우는 아픈 그 시절,  
기계소리에 말려 흩어지는 우리들의 참새 너희들의 콧 노래와  
언 눈길을 걷는 발자국 소리와 더불어 가슴속으로 스며드는  
청년과 너의 따듯한 귓속 다정한 웃음으로  
우리들의 청춘은 참말로 꽃다웠고,  
언 밥이 주림보다도 쓰리게  
가난한 청춘을 울리는 날,  
어머니가 되어 우리를 따듯한 품속에 안아주던 것은  
오직 하나 거리에서 만나 거리에서 헤어지며,  
골목 뒤에서 중얼대고 일터에서 충성되던  
꺼질 줄 모르는 청춘의 정열 그것이였다.  
비할 데 없는 괴로움 가운데서도  
얼마나 큰 즐거움이 우리의 머리 위에 빛났더냐?

그러나 이 가장 귀중한 너 나의 사이에서

한 청년은 대체 어디로 갔느냐?  
어찌된 일이나?  
순이야, 이것은 ……  
너도 잘 알고 나도 잘 아는 멀쩡한 사실이 아니냐?  
보아라! 어느 누가 참말로 도적놈이나?  
이 눈물나는 가난한 젊은 날이 가진  
불쌍한 즐거움을 노리는 마음하고,  
그 조그만 참말로 풍선보다 얇은 숨을 안 깨치려는 간지런 마음하고,  
말하여보아라, 이곳에 가득 찬 고마운 젊은이들아!

순이야, 누이야!  
근로하는 청년, 용감한 사내의 연인아!  
생각해보아라, 오늘은 네 귀중한 청년인 용감한 사내가  
젊은 날을 부지런한 일에 보내던 그 여윈 손가락으로  
지금은 굳은 벽돌담에다 달력을 그리겠구나!  
또 이거 봐라, 어서.  
이 사내도 네 커다란 오빠를……  
남은 것이라고는 때묻은 넥타이 하나뿐이 아니냐!  
오오, 눈보라는 「 튜력 」 처럼 길거리를 휘몰아간다.

자 좋다, 바로 종로 네거리가 예 아니냐!  
어서 너와 나는 번개처럼 두 손을 잡고,  
내일을 위하여 저 골목으로 들어가자,  
네 사내를 위하여,

또 근로하는 모든 여자의 연인을 위하여……

이것이 너와 나의 행복된 청춘이 아니냐?